

〈특집: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의 역사·문화적 의의〉

##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의 의례주체와 설행양상

구 미 래 \*

〈목차〉

- I. 청련사 예수재의 신앙적 기반
- II. 근현대 청련사 예수재의 전승
- III. 상주승려의 의례집전과 전승능력
- IV. 신도의 참여방식과 신앙구도
- V. 의례체계와 설행양상
- VI. 맺음말

[국문초록]

청련사에서 전승되는 예수재를 민속학적 관점에서 살펴 네 가지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청련사는 조선시대에 ‘동청련 서백련’의 양대 열반계 사찰로 지정되어 현세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의미가 두드러진 역사를 지녔다. 아울러 1960년대부터 예수재를 치른 유형·무형의 자료가 전하여 의례의 신앙적 기반과 전승내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예수재의 핵심기반인 범패와 작법무와 장엄을 사중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전승해왔다는 점이다. 어산과 장엄을 담당하는 승려가 절대부족인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여러 세대의 승려들이 대물림으로 이어오는 가운데 독자적인 용상

---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방을 구성할 수 있었다.

셋째, 중앙절예수재와 윤달예수재뿐만 아니라, 재자 단독으로 주관하는 독설판예수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합동과 독설판의 예수재를 칠칠재로 행하고 있어, 망자를 위한 우란분재·사십구재의 칠칠재와 대귀를 이루며 생전의 수행정진을 이끌고 있다. 또한 위패를 봉안하는 법당에는 망자위패와 나란히 생자위패를 모시면서 ‘자행과 타행’, ‘생전과 사후’를 연계하는 패러다임의 신앙양상을 보여준다.

넷째, 의례의 여러 구성요소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특성을 살필 수 있고, 산화락번·시주번·총명지 등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장엄과 의례요소들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장엄이 다양하게 발달되고 시주를 부각시키는 시주번을 중시하는 점, 문서로 작성하는 요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 상단에 각상의 소반을 사용하는 점 등에서 왕실과 지배층의 재를 많이 치러온 역사와 연관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 □ 주제어

예수재, 안정사, 불교의례, 독설판(獨設辦), 용상방(龍象榜), 사십구재, 칠칠재, 생전위패, 불교장엄

## I. 청련사 예수재의 신앙적 기반

청련사(靑蓮寺)는 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구원의 문제를 중시하면서도, 현세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의미가 두드러진 역사를 지녔다. 이는 1395년(태조 4) 무학대사가 안민정국을 기원하는 안정사(安定寺·安靜寺)로 창건하여<sup>1)</sup> 이후 청련사로 개칭되었고, 세조대에 ‘정토왕생을 의미하는 동청련(東靑蓮) 서백련(西白蓮)의 양 열반계(兩涅槃界)로 지정’<sup>2)</sup>되

었다는 초기기록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동청련·서백련’은 각기 한양도성의 동쪽과 서쪽에 있던 청련사와 백련사를 뜻한다. 백련사 또한 본래 정토사(淨土寺)로 설립되었다가 세조대에 의숙공주의 묘가 백련산 아래 있어 이 절을 재궁으로 정하고 백련사로 개칭<sup>3)</sup>하였다. 두 사찰 모두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었으나 정토왕생의 의미부여와 함께 사명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창건 당시부터 ‘좌청련 우백련’의 개념을 지니지는 않았더라도,<sup>4)</sup> 세조대 이후 이러한 동방·서방 세계의 양대 사찰로 청련사와 백련사의 위상이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두 사찰이 ‘양 열반계’로 의미화된 것은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불교에서 공간 개념의 삼계(三界)는 현세를 중심으로 동방 약사정토와 서방 극락정토를 뜻한다. 현세불인 석가모니불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다스린다면, 이상세계인 동방과 서방은 각기 아미타불·약사여래의 삼계불이 다스린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백련사가 망자(亡者)의 극락정토 왕생을 기원하는 기능이 두드러졌다면, 청련사는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난 약사정토에서 생자(生者)의 현세열반을 추구하는 역할을 해왔던 셈이다.

1) 신라 흥덕왕 2년(827)에 창건되었다는 기록도 전하며, 근래까지 ‘안정사’라는 사명이 함께 사용되었다.

2) 백우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청련사지」, 『白牛大宗師法語集』, 청련사, 2016, 287~288쪽. 「청련사지」는 1726년(영조 2) 3창(創)부터 1942년에 이르기까지 청련사의 증건·중수 상량문과 여러 사내기록을 묶은 것으로 『奉恩寺本末寺誌』(1940년대 편찬)에 필사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를 청련사에서 『白牛大宗師法語集』의 부록(286~311쪽)으로 전문과 번역본을 실었다.

3)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4: 서울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1994, 237~238쪽.

4) 이종수, 「양주 청련사의 역사적 변천과 위상」, 『불교문예연구』 11, 불교문예연구소, 2018, 199쪽.

그런 가운데 청련사는 아미타삼존불을 모시고 〈아미타불회도〉·〈현왕도〉·〈감로도〉 등을 조성하여 극락세계 발원의 마음을 담는 한편, 지장보살과 시왕을 모신 독자적인 명부전을 갖추어 조선 초기부터 정립된 정토계 사찰로서 기능을 이어왔다. 이를 반영하여 현재 청련사의 주요전각은 아미타삼존을 모신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과 지장보살을 모신 명부전이 자리하여, 현세와 사후의 중생구제를 각기 관장하고 있다. 이는 극락정토 왕생기능을 맡았던 백련사의 전각구조와도 거의 동일하다. 백련사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는 무량수전·극락전을 비롯해 원통전과 약사전, 명부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도성의 양 열반계 주요사찰로 부각되었던 청련사·백련사의 종교적 기능이 나란히 지속되었음을 말해준다.

두 정토계 사찰의 전각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극락정토와 약사정토는 둘이 아니며 죽음의 문제 또한 삶 속에서 해결되는 것임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세와 사후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사후의 극락정토는 현세의 선업과 수행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다. 이처럼 생사의 문제에서 수미일관한 불교의 가르침, “죽어서 타력으로 지어주는 공덕보다 살아서 자력으로 짓는 공덕이 훨씬 크다”는 명제가 의례로써 정립된 것이 바로 예수재(預修齋)이다.

청련사에서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을 ‘지장전’이 아닌 ‘명부전’이라 칭하고 지장보살과 좌우 무독귀왕·도명존자를 증명으로 모신 점 등은, 시왕사상과 함께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을 소의경전으로 한 예수재 설행에 초점을 둔 구성이라 볼 수 있다. 시왕신앙은 사후의 심판을 중심으로 시설된 것 같지만 본질은 생전의 선행 장려이며, 무명장수를 향한 소망은 적극적인 선행의 실천을 돕는 의례로 행해져왔다.<sup>5)</sup> 청련사

5) 이성운, 「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불교문예연

에서 예수재가 활성화된 것은 이러한 신앙적 배경과 깊이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청련사 예수재를 민속학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예수재를 포함한 모든 의례는 불교의 사상과 신앙을 실천하는 상징적 행위로, 두 주체인 ‘승려’와 ‘신도’의 상호관계를 통해 의례목적을 수행해나 가게 된다. 이들 주체에 주목했을 때 정태적 특징을 갖는 의례의 구조와 의미도 미시적으로는 의례현장 속에서, 거시적으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근현대 청련사에서 전승된 예수재의 양상을 살핀 다음, 의례주체인 승려와 신도에 주목하여 예수재가 전승되어온 현실적·관념적 기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의례체계와 설행양상을 살펴 예수재가 신도들에게 수용되는 방식과 특성을 다루고자 한다.

## II. 근현대 청련사 예수재의 전승

### 1. 광복 이후의 전승내력

청련사에는 1950~1960년대에 이곳으로 출가한 여러 승려들이 주석하고 있다. 여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의례에 대한 기록을 잘 남기지 않아 예수재 관련자료가 사중에 거의 전하지 않는 가운데, 오륙십년 이상을 청련사에 머물고 있는 이들 노승의 구술은 기록되지 않은 소중한 역사라 하겠다.

출가해보니 우리 절에서는 영산재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개인 사십구재로 하는 영산재를 엄청 많이…, 예수재는 그리 못하고, 윤달이 들었을 때 합동으로 했어요. 여럿이 비용을 만들어야 재 채비를 하는 거니까 윤달마다 하고…, 큰 재가 들면 우리 스님들이 다른 절에 가기도 하고, 다른 절 스님들 모시기도 하면서 그렇게.<sup>6)</sup>

영산재는 청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고, 예수재는 상설이라서 해마다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때는 신도들 살림살이도 다 어려울 때거든. 그래서 3년마다 올리고…, 개인으로 하는 예수재도 많았어요. (연구자: 독판으로 하는 것 말씀이지요) 그렇죠. 이후라씨 장모님 예수재 때 내가 종두 역할을 했어요. 그때가 내 스무 살 적이니까 한 50년 됐어. 또 이삼십 년 전에 왕십리 있을 때, 신도분이 진짜 크게 했던 거, 그 두 개가 특별히 기억나네.<sup>7)</sup>

1955년과 1961년에 각각 청련사로 출가한 주지 해경(海耕) 스님과 지홍(智弘) 스님의 말처럼 적어도 1960년대 청련사에서는 윤달이 드는 해마다 예수재를 치렀고, 합동예수재뿐만 아니라 독설판(獨設辦) 예수재도 나란히 설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홍스님이 종두(鐘頭) 역할을 맡았던 독설판은 유명정치인이 주관한 예수재였기에 자신이 스무 살 되던 해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 1968년의 예수재임이 확인된다.

왕십리에 있던 청련사는 20세기 초부터 인근의 흥천사·개운사와 함께 경산제(京山制) 동교(東郊)파 범패의 주요사찰이었고, 특히 청련사의 경우 도성의 비보사찰로서 의례전통을 지녀 승려들의 염불과 범음성 자질이 중요하였다.<sup>8)</sup> 1910년에 청련사로 출가한 능해(能海) 스님은 근대 청

6) 구술 : 해경스님(1942년생). 2018년 9월 17일 청련사 대적광전동 회의실에서.

7) 구술 : 지홍스님(1949년생). 2018년 9월 17일 청련사 대적광전동 회의실에서.

8) 윤소희, 「청련사 어산상진 범음성 계보와 성음의 특징」, 『불교문예연구』 11, 앞의

련사의 제일 윗대 어장으로, 1979년 입적할 때까지 서울 여러 지역의 범패승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동교파·서교파 하지만, 지역이 이쪽·저쪽이란 뜻이고, 우리는 능해스님이 주관해서 개운사 스님들 하고도 하고, 봉원사 스님들하고도 같이 했어요. 절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불러서 모시기도 하고, 광화문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대부분 서로 불러주고 품앗이 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소리가 조금 틀려도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 해가면서 들으면서 같이 해가는 거지. 슬쩍슬쩍 그런 소리 들으면서 어렸을 때 같이 옆에서 시봉하고 그랬어요.<sup>9)</sup>

20세기 초 서울에서 활동한 범패어산 가운데 이만월(李滿月)이라는 동일한 범명을 지닌 두 승려가 있어 백련사의 승려를 서만월, 개운사의 승려를 동만월이라 불렀다.<sup>10)</sup> 따라서 청련사에서는 동만월스님이 활동했던 동교계의 개운사뿐만 아니라 서만월스님이 주축이 된 서교계의 봉원사·백련사와도 오랜 교류가 이어졌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광복 후 범패와 작법이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봉원사·백련사·청련사를 중심으로 그 맥을 잇고 있다’<sup>11)</sup>는 담론이 전하는 등, 어산활동이 뚜렷했던 근현대기 청련사에서 예수재가 활발하게 전승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예수재 설행에 대한 기록은 「불교신문」의 전신으로 1960년에 창간된 「대한불교」에서부터 조금씩 등장한다. 이를테면 「대한불교」의

책, 273쪽.

9) 구술 : 지홍스님(1949년생). 2018년 9월 17일 청련사 대적광전동 회의실에서.

10)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李朝佛敎』, 1929; 韓萬榮, 『韓國佛敎音樂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증보판, 14~18쪽에서 재인용.

11) 김영렬, 「불교 영산재의 문화 콘텐츠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27쪽.

1960년 10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경산제 동교파로 청련사 인근의 개운사에서 ‘음력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수재를 거행’<sup>12)</sup>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 이 무렵 청련사의 예수재 또한 설행되었음이 짐작된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초반의 예수재 설행을 말해주는 옛 사진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1958년에 청련사로 출가하여 개명산 청련사를 중창한 백우(白牛) 스님을 중심으로 4인의 승려가 법당 앞에서 찍은 것으로, 사진 뒤에 ‘안정사에서 생전예수 생칠일재 법회 후 기념촬영’이라 쓰여 있다.<sup>13)</sup> 이 사진은 1969년 백우스님이 석송(石松) 스님의 법맥을 전수받은 건당(建幢) 후 몇 년이 지난 1970년대 초반에 찍은 것이라 한다. 아울러 사진에는 백우스님을 중심으로 뒤쪽에 혜암(慧庵) 스님이 있고, 당시 흥천사의 법운(法雲) 스님과 봉국사의 청산(靑山) 스님이 좌우에 함께하여 인근사찰의 여러 승려가 청련사 예수재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 2. 동영상에 기록된 1995년의 청련사 예수재

청련사 예수재에 관한 본격적인 기록은 1995년의 예수재를 촬영한 동영상에 담겨 있다. 47분 정도의 분량이어서 의례절차는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읽을 수 있으며, 청련사에서 사중의 승려 6인과 함께 동영상을 보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2018. 9. 17). 이 예수재는 1995년 윤8월에 설행한 것으로 18일부터 일주일간 치러졌고 마지막 날인 24일(양력 10. 18)의 의식을 촬영한 것이

12) 「대한불교」 1960년 10월 20일자 3면. 「대한불교」(「불교신문」 전신)는 조계종에서 발간한 신문으로, 아래 연구를 참조하여 1960년대의 사례를 보면, 조계사·개운사를 비롯해 봉녕사·동화사·운흥사·범어사·은혜사 등 조계종 소속의 전국 사찰에서 봉행한 예수재 기사들이 실려 있다. : 성창환, 「현대 생전예수재의 역사와 의의: 조계사를 중심으로」, 『생전예수재 연구』, 민속원, 2017, 99~103쪽.

13) 이 사진은 『白牛大宗師法語集』, 앞의 책, 16쪽에 수록되어 있다.



었다.

예수재의 경우 의례절차나 의문이 아닌 실제 양상을 다룬 자료는 근래의 것이 아니면 거의 찾기 힘들어, 예수재 전승의 주요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영상에서 파악 가능한 예수재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995년 동영상에 나타난 청련사 예수재의 구성요소들

구분	세부내용
참여승려 (12인)	법악기(목탁·요령·태징·법고·태평소), 작법무(바라춤·나비춤), 화청
특별설단	괘불단, 사자단, 마구단, 고사단
장업	번, 오색목, 금은전, 주망공사, 산개 등
주요요소	지전·경전·함함소
별소, 방	별공소(別供所), 기도소(祈禱所), 양산문(仰山門), 금난방(禁亂榜) 등
기타	합창단

예수재에 참여한 승려들은 약 12인으로 대부분 청련사 대중들이었다. 이 가운데 벽파(碧波)·백우·혜암 스님은 입적하였고, 해경·도암(道庵)·지흥·심곡(尋谷)·벽산(碧山) 스님 등은 현재 청련사에 주석하고 있다. 2인은 연로하여 퇴방하였고, 타 사찰에서 참여한 승려는 비구니 2인으로 작법무와 회심곡을 맡았다. 따라서 사중의 승려 모두가 예수재의 전승주체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벽파스님이 법주를 맡은 가운데 모든 승려가 함께 염불을 하였고, 태평소(호적)는 거사 박장복이 담당하였다. 작법무는 바라춤의 경우 4인 또는 2인, 나비춤의 경우 2인으로 구성하여 정적인 몸짓으로 추었다. 화청을 할 때는 태징을 놓쳐놓고 직접 쳐서 장단을 맞춰가며 회심곡을 불렀

다.

예수재를 위해 야외에 마련한 특별설단은 괘불단과 사자단·마구단·고사단이다. 예수재의 주 의례대상인 명부 시왕과 권속은 1924년에 중창한 명부전(시왕전)에 모셔져 있기에 법당 내에 번과 장엄을 하였다. 괘불단에 모신 <아미타칠존괘불도>는 지금도 예수재에서 모시는 괘불로 1937년에 조성된 것이다. 당시 청련사에는 19~20세기 초에 조성되어 현전하는 <비로자나오존괘불도>가 있었지만 다시 세로로 긴 <아미타칠존괘불도>를 조성<sup>14)</sup>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에도 영산재·예수재처럼 야외에서 괘불을 모시고 치르는 대형 재회가 성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괘불단에 올린 각종 과일·떡·건과류 등의 공양물은 굽다리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 작은 상에 한지를 덮어서 차렸다. 지금도 청련사에서 큰 재를 치를 때 법당의 각단공양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해 승려들은 “고임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 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다”라고 하였다.

괘불을 중심으로 향 우측에는 열두 폭 병풍을 두르고 마구단과 사자단을 나란히 차렸다. 마구단은 짐을 실은 일곱 마리의 말 그림을 걸고 위목(位目)으로 ‘봉청(奉請) 마구전(馬廐前)’이라 쓴 번을 세웠다. 공양물로는 짚신 4켢레와 함께 짚·콩 등의 여물을 차리고 수북하게 담은 마지를 함께 올렸다. 사자단에는 4인의 사자 그림을 걸고 ‘봉청 사자전(使者前)’이라 쓴 번을 세웠으며, 마지와 과일·떡 등을 차렸다. 고사단은 지전을 쌓아놓은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데 책을 펼쳐놓은 고사의 모습과 ‘봉청 고사전(庫司前)’이라는 번이 보인다. 시련을 하고나서 대방인 관음전 앞에 연(輦)을 두고 바라춤을 추었는데, 이는 관음전에 관욕실을 마련했기 때

14) 백우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청련사지』, 위의 책, 291·293·296쪽 ; 유경희, 「양주 청련사 봉안 불화의특징과 의미」, 『불교문예연구』 11, 앞의 책, 363~364쪽, 372~375쪽.

문이고 이때의 작법무는 관육바라였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의 청련사 예수재에서 주목되는 점은 장엄과, 지전·경전·함함소 등을 쓴 경함(經函)이었다. 장엄을 먼저 살펴보면, 법당 처마에서 시작되는 오색목을 맞은편 전각에 다섯 갈래로 연결하고, 야외와 법당 내의 곳곳에 줄을 매어 각종 번을 걸었다. 한지에 삼색으로 물들인 향마번에서부터, 붓글씨로 쓰거나 그림을 그린 다음 갖가지 문양으로 발



사진 1. 2인의 나비춤(1995년 예수재)



사진 2. 쌓아놓은 수백 개의 지전과 경전(1995년 예수재)

을 오린 오방번·삼신번·시주번 등은 의례를 한층 장엄하고 여법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번 가운데 근래 거의 사라진 산화락과 시주번도 있었다. 시주번에는 ‘성동구 안정사 대중복위 생전예수재자 청신사청신녀 동남동녀 등 복위 생전수복 사후왕생지 발원’이라 써서, 동참재자들이 모두 생전에는 다복하고 사후에는 좋은 곳에 나기를 발원하는 뜻을 담았다.

법당의 양쪽에는 대형의 금은전인 전산(錢山)을 걸고, 명부전에는 명부시왕에게 보내는 서찰로 갖가지 색지를 접어 만든 열 개의 주망공사(朱網公司)로 장엄한 뒤 시왕과 권속마다 위목을 번에 써서 어깨 위로 늘어 뜨려 놓았다.

지전과 경전을 쓴 경함은 괘불단 향 우측 전각의 낮은 마루 위에 엄청난 분량으로 쌓여 있었다. 경함은 각각 사각의 두툼한 모습으로 한지에 곱게 싸여있는데 이러한 뭉치가 3백~4백 개는 될 듯하였다. 경함 안에는 예수재에 동참한 개인의 이름과 육십갑자와 주소 등을 쓴 합합소(緘合疏)를 영수증처럼 맨 위에 올려두었다고 했다.

또한 의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도의 소(所)를 시설하고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방(榜)을 표시해두었다. 불보살과 사부대중의 공양을 준비하는 별공소(別供所)와 기도소(祈禱所)를 두었는데, 명부전을 기도소로 하여 예수재의 주 의례대상인 시왕에게 신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였다. 아울러 성현의 가르침을 우러르는 양산문(仰山門), 의례공간을 결계하는 금난방(禁亂榜) 등의 방을 붙였다. 이 외에 15인 정도로 구성된 신도합창단이 법당 안팎에서 찬불가를 올렸다.

“신도가 참 많았다. 저때는 우리가 스포츠 식으로 머리를 길렀을 땐 테도 신도들 신심이 아주 깊었다.”는 승려들의 말처럼 당시의 예수재는 12인의 사중승려들과 수백 인의 신도들이 전승주체가 되어 함께 치르는 여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4년 전이지만 현재 청련사에서 실행하는 예수재와 장엄·설단 등이 유사하여 일찍부터 의례의 여러 요소들이 정착되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범패와 작법무를 감당하고, 갖가지 장엄과 지전을 만들어 예수재를 전승해온 점이 주목된다.

이후 청련사는 사찰의 재산소유권이 통합종단으로 출발했던 조계종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권을 잃고 수백 년간 법등을 이어왔던 왕십리의 옛 터전을 떠나게 된다.<sup>15)</sup> 2010년 양주 개명산 자락으로 이전하면서 청련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며, 예수재 또한 『예수시왕생칠경』에 따른 칠칠재로 실행하면서 ‘예수시왕생칠재’라는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다.

15) 이종수, 앞의 논문, 216쪽.

### III. 상주승려의 의례집전과 전승능력

#### 1. 승려의 인적 자산과 세대별 전승양상

청련사에서는 범패와 작법무와 장엄을 사중의 승려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어산(魚山)은 물론 전통장엄을 잇고 있는 승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독자적인 용상방(龍象榜)을 구성하여 수십년간 의례를 전승해온 점을 청련사 예수재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만하다.

사중의 승려 가운데 가장 연배가 높은 해경스님과 도암스님은 십대였던 1955년과 1954년에 각각 청련사로 출가하여 지금까지 주석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고 배운 가장 윗대 스승은 능해스님이다. 따라서 <표2> '근현대 청련사 승려의 세대별 구성'을 참조하면 능해·덕봉·청호(淸湖)·춘담·계담(戒潭)·벽담(碧潭) 스님<sup>16)</sup>을 1세대로 볼 수 있으며 1910~1920년대에 청련사로 출가해 이곳에서 삶을 마친 이들이다. 2세대는 1939~1949년에 출생해 주로 1950년대에 출가한 이들로 벽파·백우·혜암 스님은 근래 입적하였고, 해경·도암·지홍 스님은 사찰을 지키고 있다. 3세대는 1950~1960년대에 출생해 출가한 지 15년 이상이 된 이들, 4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로 편의상 구분해보았다.

1·2세대의 승려들은 대부분 범패에서부터 장엄에 이르기까지 의례를 총체적으로 집전할 수 있는 인력이었다. 민간에서 관혼상제를 모두 집에서 치르며 한 집안의 어른들이 의례전문가로 자리매김하듯이, 사찰

16) 계담스님과 벽담스님은 1995년 예수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사중에 주석하고 있었다.

표 2. 근현대 청련사 승려의 세대별 구성

【1세대】	➔	【2세대】	➔	【3세대】	➔	【4세대】
능해(1892-1979)		벽파(1939-2011)		심곡(1953- )		일구(1958)
덕봉(1911-1994)		백우(1943-2015)		벽산(1955- )		일진(1958)
춘담(1915-1960)		해암		상진(1956- )		일서(1964)
청호(1915-1999)				거진(1957- )		일옥(1966)
계담		해경(1942- )		효능(1967- )		일명(1967)
벽담		도암(1942- )				일심(1969)
		지홍(1949- )				보휴(1971)
						일효(1974) 등

에서도 이른 시기에 출가해 모든 습의(習儀)를 익히고 의례를 감당하며 법랍을 쌓은 승려들은 기량과 무관하게 의례전문가가 되게 마련이었다. 분규 이후 한국불교계가 선종을 표방하면서 불교의례를 멀리했지만 태고종은 그 맥을 꾸준히 이어왔고, 청련사는 오랜 의례전통을 지닌 데다 사찰규모도 있었기에 크고 작은 재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2세대인 해경·도암·지홍 스님은 지금도 의례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3세대 또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1·2세대의 전승내용을 모두 배우고 익힌 승려들이다. 이처럼 여러 세대의 승려들이 함께 의례를 치르면서 대물림이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습의를 익히며 대중생활을 하더라도 개개인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의례의 전문분야가 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1910년에 청련사로 출가하여 세수 88세로 입적한 능해스님은 의례 전반에 뛰어나, 그를 기억하는 청련사 대중은 ‘만능’이라고 입을 모았다. 범패에 능한 어장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 남달랐던 능해스님은 어릴 적부터 선대 승려들로부터 장엄을 배우고 익힌 솜씨가 뛰어났다. 따라서 그의 후배와 제자들은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전문분야를 찾아 심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먼저 범패전승을 살펴보면 능해스님을 중심으로 1920년대에 출가한 제자 춘담·덕봉·청호 스님이 함께 근현대 청련사의 1세대 어장으로 의

례를 이끌었고, 2세대에서는 1950년대에 출가한 벽파·백우 스님이 그 맥을 이었다. 현재 선대의 소리를 이어받아 활발하게 범패를 이끌어가는 3세대는 상진(常眞) 스님이다. 백우스님은 청련사의 범패전승의 맥을 튼실히 하고자 전국의 태고종 승려들에게 범패를 가르치며 활동하고 있던 상진스님을 청련사 대중으로 청하였다. 이에 2003년부터 상진스님을 바깥채비 어장으로 하는 대형 재회를 함께 치르도록 하여 벽파·백우 스님 등의 2세대로 이어진 청련사 범패를 자연스레 대물림하였다. 이렇듯 7~8년간의 의례합류를 기반으로 하여 2010년부터 상진스님은 본격적인 청련사 대중이 되었고, 현재 어장으로서 청련사 예수재를 비롯한 의례를 이끌어가고 있다.

장엄의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전문기량을 갖춘 승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번·지전·지화 등을 직접 만들어 썼던 청련사의 1·2세대 승려 가운데 기량이 뛰어난 이들로 능해스님은 물론 덕봉스님과 혜암스님도 장엄의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1961년에 출가한 지홍스님은 손으로 무얼 만들고 글씨를 쓰는 데 소질과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배우기까지 지난한 세월이 걸렸다.

난 공부보담도 이러 거 하는 걸 좋아했어. 능해스님께 배웠는데 가르쳐달라고 해도 따로 가르쳐주시진 않아요. 시봉하면서 일할 때 틈틈이 배우는 거지. 이후라씨 예수재 할 때 내가 종두를 했는데, 큰 재가 들면 원종두, 보충종두가 있어요. 원종두가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종두를 하나 더 뒤야 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종두가 많~은 거야. 큰스님이 장엄은 누가 맡고 과는 누가 맡고 분야별로 맡기는데, 종두는 그걸 다 해야 돼. 과하는 데 가서도 시봉해야 되고 장엄하는 데 가서도 시봉해야 되고, 그래서 종두가 그렇게 계속 겪고 나면 다 할 줄 알게 되지.<sup>17)</sup>

지홍스님이 장엄을 배운 스승은 능해스님이었지만 따로 가르쳐주는 법이 없었다. 일을 거들면서 조금씩 익혀가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가 청련사의 모든 장엄을 도맡게 된 것이다. 2018년 8월 19일 지홍스님이 장엄 일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청련사를 방문해 대방에서 각종 번을 비롯해 지전과 주망공사 등을 직접 만드는 모습을 참관하였다. 그는 정교하고 여법하게 장엄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장엄마다 전통재료와 주의점 등을 이야기해주어 불교장엄 제작의 생생한 전승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당시 대방 마당에서는 제자 일구(一句) 스님이 속이 비고 가운데 뽕죽 한 구멍이 뚫린 쇠파이프 모양의 ‘돈정’으로 황색·백색의 한지묵음에 10개씩 아홉 줄의 지전을 쳐서, 한 장마다 10전9환이 될 수 있도록 금은전을 만들고 있었다. 평소에는 판매용 지전을 쓰고 있지만 수년마다 한 번씩 전통방식을 잊지 않기 위해 직접 만드는 것이다. 대방에는 지홍스님과 함께 제자 보휴스님과 일명스님이 번을 쓸 종이를 잘라 오색으로 된 머리와 발을 붙이고, ‘충명지’를 만들어 지전에 꽂는 등 함께 장엄 일을 도왔다.

예전에는 한지를 주문해서 모든 장엄을 만들어 썼기에 큰 재가 들면 한 트럭 분의 종이가 들어와서 육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했다. 지금은 예수재에 쓸 번과 주망공사는 새롭게 조성하고 지전은 경함세트를 구입하여 쓰고 있지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단절시키지 않아야 하기에 5년 정도마다 함께 만들어보는 것이다. 지화는 능해스님 당시까지 사중에서 모두 만들었지만, 1995년 무렵부터는 외부사찰에 의뢰하여 쓴다고 한다.

청련사 승려들이 각자 맡은 일을 전승시켜나가는 방식도 다양하였다. 어장 상진스님은 두툼한 노트에 자신의 모든 염불을 악보로 그려놓고 각

17) 구술 : 지홍스님(1949년생). 2018년 8월 19일 청련사 대적광전동 대방에서.



의례를 행하는 의미와 세부사항, 마음가짐 등 다양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두었다. 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승방식도 적혀 있어 흥미롭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촘촘촘’ 식 염불은 글자를 한 자씩 띄어 읽는 것이고 ‘착착착’ 식 염불은 신나는 염불이 된다.
- 요령을 들 때는 한번 감아 치고 난 후 혼든다. ‘나무일심봉청’ 하며 청사(請詞)를 할 때는 옆에서 바라지가 조용조용히 ‘나무 보문시현 원력 홍심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정근을 해도 된다. …혼자 다 못하니까 바라지가 있을 경우는 청사할 때 정근을 모셔두면 아무 문제없이 좋은 것이다.
- 시왕변에 보면 일직사자·월직사자가 차는 방망이에 그물이 있다. 이 그물방망이를 시왕변 사이에 걸어두면 영가는 그물망 사이로 타고 들어간다고 옛 어른들이 말했다.

일구스님은 사중에서 전해오는 영단의 상차림 외는 법을 알려주었다. 삼색 나물은 ‘고무신’으로 외는데 이는 고사리·무생채·시금치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상을 차릴 때 빠짐없이 올려야할 종류로 외는 ‘과채탕적메’는 과일·채소·탕·적·메를 뜻한다. 의례를 치르면서 스스로 터득하거나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암기법이라 하겠다.

## 2. 독살림에서 원용살림으로

청련사는 본래 독살림으로 운영되는 사찰이었다. 독살림은 각방살림·독살이라고도 하는데, 사찰운영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독살림 사찰의 경우 주지는 따로 있지만, 주지를 포함해 승려 각

자는 자신에게 소속된 신도들을 관리하면서 별도살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재가 들어오면 개별승려가 주관하여 법당을 공유하는 가운데 규모에 맞게 인원을 꾸려 의례를 진행하고, 사찰 유지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내는 방식이다. 대개 규모가 큰 재를 치를 때는 사중의 모든 승려가 함께 참여하게 마련이다.

전통적으로 서울지역에서 독살림 체제로 운영되어온 대표사찰로는 태고종 봉원사·백련사·청련사, 보문종 보문사, 조계종 미타사를 꼽는다. 이 가운데 보문사(普門寺)와 미타사(彌陀寺)는 성북구 삼각산 아래에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한 비구니사찰로, ‘탑골승방’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 두 사찰은 산중의 큰절에서 인근에 부속암자들을 두고 있듯이, 경내에 너댓 개의 암자가 모여 사원촌을 이룬 형태이다. 이를테면 보문사의 경우 중실·청화당·동별당·서별당·남별당이라는 암자로 구성된다.

이처럼 독살림은 암자 개념에 가깝다. 승려개인이 운영하지만 함께하는 제자 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봉원사의 지암스님은 독살림 사찰에 대해 ‘절은 하나지만 스님 수만큼 절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sup>18)</sup>라 표현하였고, 지홍스님 또한 “청련사 내에 각 법당, 암자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봉원사와 같다.”고 하였다.

‘큰절’과 ‘작은 절’로 연결된 이러한 운영방식은, 주지 혼자 운영하는 사찰과 비교할 때 명칭은 동일하나 개념은 다르다. 현재 한국불교의 경우 큰 절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러 여건으로 인해 주지 1인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다수의 승려가 있더라도 기도전담이거나 잠시 머무는 객승이어서 대중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대중의 독살림 사찰은 종단과 무관하게 스승·제자와 사형·사제·도반이 함께 모여

18) 구술 : 지암스님(1950년생), 2004년 2월 20일, 봉원사 묘사에서.

수행과 포교로써 사찰을 이끌어가는 대중생활이 중심을 이룬다. 아울러 전통시대에는 규모가 큰 사찰에서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 대중살림을 했듯이 운영의 편의를 위해 택한 체제이기도 하였다.

청련사는 이처럼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독살림 사찰로 운영되다가 2010년 양주로 이전함과 동시에 원용살림으로 체제변혁을 이끌어내었다. 청련사 대중이 2015년 입적한 백우스님을 기리며 쓴 글에 이러한 내용과 배경이 실려 있다.

주지 해경스님을 비롯하여 우리 청련사 대중스님들은 청련사에서 백우스님과 인연을 맺었고 수십 년간 친구이자 스승이자 선배로서 스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청련사를 이긴한 후 스님께서서는 태고종의 관습인 각방살림을 청산하고 원용살림을 제창하고 실천하셨습니다. 백우스님은 원용살림을 해야만 사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있으셨고 청련사에서 그 뜻을 관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원용살림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부터는 모두 백우스님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sup>19)</sup>

백우스님은 1955년 13세의 나이로 청련사에 출가해 60년간 한곳에서 살아온 승려로, 수백 년간 법등을 이어왔던 도량을 떠나 양주에 새 터전을 마련한 현대 청련사의 중창주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사중의 승려들과 함께 독살림을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대중살림으로 바꿀 의논을 해왔으나, 막상 결정을 내렸을 때 독살림에 익숙해있던 대중의 고민과 반대가 많았다.

19) 백우대중사법어집 편찬위원회, 『白牛大宗師法語集』, 앞의 책, 72~72쪽.

그때 당시에 도감체제를 벗어나서 하나로 청련사를 하는 데 대해 많은 스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실수한다, 실패한다…. 그런데도 지금은 성공리에 자리를 잡았지. 또 그 반면에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공양이 되고 한니까. 예전에 독살이를 하게 되면 신도관리를 하는 스님들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뿔하지만 좀 낮고, 독살이 하지 않는 스님들은 항상 좀 빈약했어. 근데 지금은 평등체제로 갔고, 우리가 지금 승려로서 얼마나 좋습니까.<sup>20)</sup>

처음에는 반대했던 승려들도 점차 신도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평등한 대중생활이 합리적이고 수행자의 삶에 더 적합함을 알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승려 개인을 찾아오는 신도들도 많아 종무소의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지만, 모든 재정과 운영은 사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백우스님에 이어 주지로 취임한 해경스님은 “예전에도 큰 재가 들면 사중의 모든 스님이 함께 했지만, 이제 말 그대로 원용살림이고 대중살림이 돼서 뭘 하더라도 여법해졌다. 뜻을 함께 모아 큰일도 잘 치러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벽산스님은 “내가 35년 전에 출가했을 때만 해도 각방이 열 개 정도나 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신도관리를 하는 도감스님이 10인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유능한 도감이 되려면 승려 개개인이 의례를 관장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한편으로는 독살림 체제가 의례의 전승과 전문화에 장점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었던 셈이다.

의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원용살림으로의 체제변혁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독살림이 승려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도제교육 방식의 전승에 도움이 되었다면, 원용살림으로 사찰이 주체가

20) 구술 : 벽산스님(1953년생), 2018년 9월 17일 청련사 대적광전동 회의실에서.

됨에 따라 중진승려 중심에서 4세대의 승려 또한 고루 의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큰 재가 들면 도감이 인원을 짜게 되는데, 이때 사내의 대중보다 외부의 전문승려를 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테면 1995년의 예수재에서 항마번과 신도번은 지홍스님이 만들었지만 다른 번과 금은전은 봉원사에 의뢰한 것이었다.

당시는 지홍스님이 35년 정도 장엄을 해온 전문가였지만, 다른 도감 승려가 재를 주관하면서 능해스님(1979년 입적)과 덕봉스님(1994년 입적)을 대신해 사중의 승려가 아닌 봉원사에 의뢰했던 것이다. 따라서 원용살림으로 바꾼 뒤부터 모든 재는 청련사 대중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특히 출가 후 사찰을 거의 옮기지 않는 태고종 청련사 대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젊은 상주승려의 전승기량이 일찍부터 길러질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4세대·5세대 승려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의례를 전승하고자 양주로 이전한 2010년부터 안정불교대학을 열었다. 이곳 범패과에서 어장 상진스님이 이론과 실기를, 제자 효능(曉能) 스님이 이론을 맡아 4세대 일구·보후·일심(一心)·일효(一孝)·일진(一眞)·일명 스님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해나가고 있다. 태고종의 전통인 독살림 방식을 깨고 원용살림으로 전환한 청련사와 청련사의 의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루어나갈지 주목된다.

## IV. 신도의 참여방식과 신앙구도

### 1. 합동예수재와 독설판예수재

청련사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重陽節)과 3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에 칠칠재(七七齋)로 예수재를 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 예수재가 많은 신도들이 동참하는 합동예수재로 진행된다면,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설행하는 독설편예수재도 나란히 전승되어왔다. 독설편예수재는 재자(齋者)의 상황에 맞추어 날짜를 정하며 의례내용은 합동예수재와 차이가 없다.

설편(設辦)이란 수록재·영산재·예수재 등의 의례나 법회를 열 때 그 비용을 마련해내는 일을 말한다. 이때 참여하는 이들을 ‘동참재자’라 하는데,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여유 있는 신도 가운데 큰 비용을 내는 이를 ‘설편재자(設辦齋者)’라 부른다. 현장에서는 ‘중판재자’라는 개념도 있어 설편재자-중판재자-동참재자<sup>21)</sup>로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독설편’은 설편재자와 유사하지만, 재를 단독으로 주관한다는 점에서 합동설편의 반대개념으로 생겨난 명칭이다. 합동설편은 보편적인 의례방식이므로 여기서는 대형의례를 독설편으로 설행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대형의례라 하더라도 의례성격에 따라 재자의 참여방식이 달라진다. 규모가 큰 대표적인 불교의례로 수록재(水陸齋)·영산재(靈山齋)·예수재를 살펴보자. 먼저 고훈 천도의 목적을 지닌 수록재는 일반적으로 독설편 개념이 희박하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목적의 수록재가 있어 칠칠재·기신재 등을 수록재로 치르기도 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양상을 찾기 힘들며, 합동의 정기의례로 설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비해 개인을 의례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영산재와 예수재는 독설편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열려있다. 영산재의 경우 합동으로 치르기도 하지만 사십구재와 결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개인의 임종에

21) 구미래, 「근현대 생전예수재의 전승양상」, 『불교학보』 7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207쪽.

따르는 의례이기에 독설판이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몇몇 영산재를 제외하고 사십구재의 규모가 커질 때 영산재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청련사에서 “옛날부터 영산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도 모두 사십구재를 영산재로 설행한 것을 뜻한다. 아울러 예수재는 합동설판이 보편적이지만 생전에 치르는 의례이기에 독설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련사에서 독설판으로 설행한 예수재 가운데 승려들이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1968년 유명정치인이 주관한 예수재와 1990년대에 설행한 예수재이다. 두 예수재는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절이 떠들썩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설판예수재는 영산재로 설행하는 사십구재 정도의 규모이다. 사십구재를 지낼 때 입재한 뒤 1·3·5·7재 또는 초하루·보름 재로 지내거나 막재만 지내는 등으로 다양하듯이, 예수재도 재자의 형편에 따라 칠칠재로 지내거나 막재만 지내기도 한다. 그러나 7일을 일곱 번 거치는 의례단계의 의미를 중시하고 있어 가능하면 칠칠재로 설행된다는 점 등 두 의례의 양상은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사십구재는 죽은 뒤에 자손이 지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생전예수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전에 미리 사십구재를 지내는 것이다. 사십구재를 지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 기간 동안 염불수행과 공덕을 쌓는다. …49일간 본인이 부지런히 수행하고 공덕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공덕으로 왕생극락한다는 것으로 …평소에는 일상생활로 수행할 수 없으나 이 기간은 본인을 위하여 수행한다는 참된 의미가 있다고 본다.<sup>22)</sup>

이처럼 불자들은 ‘생전에는 예수재’, ‘사후에는 사십구재’의 짝을 이루

22) 한태식(보광), 「생전예수재 신앙 연구」, 『淨土學研究』 22, 韓國淨土學會, 2014, 13~14쪽.

는 의미로 예수재를 설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참관한 청련사 독설판예수재 사례는 칠칠재로 설행하였고 2018년 7월 22일에 입재하여 9월 8일에 회향하였다. 예수재의 주인공은 양주시 장흥면에 거주하는 신도 김○애(1959년생)이고, 의례대상으로 합합소를 올린 이는 자신과 함께 아들, 여동생, 조카 등 4인이었다.

평생에 한번 예수재를 미리 지내다보면 제가 전생에, 또 이생에 지은 많은 업들이 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람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상진스님과 의논했는데,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였고..., 그러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덕을 쌓아서 제 업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자식이나 모두 잘 되지 않을까 해서...<sup>23)</sup>

그녀는 자신이 지은 업을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없애고자 공덕을 쌓는 일로서 예수재를 택했다고 하였다. 독설판예수재는 처음 참관하는 것이었는데, 의례의 절차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일주일마다 정갈한 한복을 갖춰 입고 의례의 주인공이 되어 재를 올리는 재자의 모습은 합동예수재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어장 상진스님은 “독으로 올리는 예수재는 재자의 마음가짐이 벌써 다르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다. 또 스스로 주관해서 부처님 앞에서 올리는 재니까 자신이 무얼 해야 하는지 계속 묻는다.”고 하였다.

경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평소에도 그렇지만 예수재를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금강경을 읽고 천수경을 읽으면서 참회해야 합니다. 예

23) 구술 : 김○애(1959년생). 2018년 8월 4일 독설판예수재 2재를 마친 뒤 청련사 명부전에서.



수재를 한다는 거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전을 읽고 절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일주일에 한번 절에 와서 참석만 하면 예수재라는 자력의 뜻이 없어요. 그건 타력으로 하는 사십구재나 같지.<sup>24)</sup>

예수재는 자신이 지은 업과 마주하는 의례이기에 참회와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전에 스스로 닦는 공덕이 사후에 대신 지어주는 공덕보다 크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이다. 아울러 ‘없으면 메밥과 삼삼나물만 올려도 된다’는 승려들의 평소 언설처럼, 예수재 또한 사십구재와 같은 규모로 얼마든지 설행이 가능하다. 위의 독설판예수재 사례에서 보듯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또는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스스로의 예수재를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생자들의 의례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사후의 타행천도(他行薦度)보다 생전의 자행예수(自行預修) 공덕이 크다는 교리적 기반 위에, 재자의 형편과 역량에 따른 불교의례의 탄력성이 작용하면서 독설판예수재 또한 전승기반을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예수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선행공덕을 쌓아 업을 맑히도록 이끄는 의례이기에 개인을 향한 의미가 크다. 따라서 ‘규모의 의례’에서 벗어나 예수재가 지닌 참뜻을 새긴다면, 사후의 사십구재와 나란히 생전의 예수재 또한 개인의 의례로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2. 망자의 영구위패와 생자의 생전위패

청련사는 조선 초기부터 현세의 약사정토와 내세의 극락정토를 아우

24) 구술 : 상진스님(1956년생). 2018년 8월 4일. 독설판예수재 2재를 마친 뒤 청련사 종무소에서.

르는 정토신앙 기능을 수행해왔고, 전각구조 또한 현세와 사후의 중생구제를 각기 관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불교의 사상과 신앙을 담고 있는 이러한 전각뿐만 아니라 위패봉안 또한 두 유형이 나란히 존재하여 흥미롭다.

먼저 청련사에는 극락원(極樂園)이라는 봉안당이 있어 신도들은 이곳에 망자의 유골을 모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이 늦게 정착되면서 2001년 종교단체의 봉안당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사찰에서 봉안당을 설립·운영하거나 사찰 내 유골탑을 모시는 사례가 확산되었다. 이는 서구사회의 교회나 일본·남방불교국가의 사찰에 묘나 유골안치시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듯이, 종교공간이 고인의 몸과 영혼을 함께 보살피는 통합적 공간으로서 적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25)</sup>

아울러 봉안당과 별개로 망자의 영구위패를 모시는 귀적당(歸寂堂)이 있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망자의 영구위패를 제작해 한곳에 모셔두었다가 기일 등에 영단으로 옮겨 제사를 지내고, 대개 십년 단위로 모시다가 재자들이 찾지 않으면 날을 잡아 불태우게 된다. 청련사에서는 영구위패를 모신 귀적당의 규모가 큰 뿐더러 입상의 불보살을 모시고 불공을 올릴 수 있는 예배공간을 마련해두었다. 따라서 신도들은 망자를 모신 이곳에 들러 불보살에게 절을 올리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그런데 귀적당에는 망자의 위패뿐만 아니라 생자의 위패까지 함께 모셔져 있다. 망자의 위패가 옅은 갈색의 나무재질인 데 비해, 생자는 흰색을 덧씌워놓아 망자와 생자의 표시가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생자의 위패에는 ‘예약자’라고 쓴 뒤 본(本)과 이름을 써놓았고 흰색 케이스를 벗기면

25) 구미래, 「불교 죽음의례의 유형과 변화양상」, 『종교문화비평』 16,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9, 79쪽.

나무위패의 본체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자가 임종을 하면 케이스를 벗기고 본체에 ‘망(亡)’ 자를 쓴 뒤 이름을 씌으로써, 생전위패가 영구위패로 전환되는 것이다. 흰색의 생전위패는 전체의 10분의 1 정도는 되어 보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중무원은 “신도분들이 자신의 위패 모시는 걸 ‘미리 예수재 지낸다’고 표현한다”고 하였다. 위패는 망자를 대상으로 한 신위(神位)이므로, 살아있을 때 자신의 사후를 위한 신위를 마련했으니 예수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17일 중앙절은 합동예수재를 설행하는 날이어서, 예수재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신도들이 귀적당에 와서 위패에 모신 망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모신 위패가 있는 단 앞에 간단한 재물을 놓고 합장한 채 기도를 하였고, 절을 하는 이도 있었다.

돌아가신 두 분 모셨고, 또 살아있는 분 둘, 이렇게 모셨지. (연구자: 할머니 위패도 모셨어요) 그럼. 나랑 영감이랑. (연구자: 언제 이렇게 모셨는지요) 모신 지는 한 3, 4년 정도? 난 혼자 안 오고 친구들이랑 여기 같이 왔어... (연구자: 할머니 살아계신데 이렇게 위패를 모셨네요) 아이구, 그냥 이렇게 미리 해두면 좋잖아. 어차피 죽으면 와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놔야지. (연구자: 청련사에는 자주 오시는지요. 주로 언제 오세요) 한 달에 두 번이나, 몇 달에 한 번? 명절 때 오고 제사 때도 오고, 오늘 또 이렇게 예수재 할 때도 오고 그렇지.<sup>26)</sup>

대적광전동 3층의 귀적당에서 만난 할머니 신도의 말이다. 그들이 스스로 신위의 ‘예약자’로 위패에 이름을 올린 모습에서, 생전에 수의를 마

26) 구술 : 천○선(79세), 2018년 10월 17일 중앙절 합동예수재 7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련사 귀적당에서.

련해놓거나 자신이 문힐 곳을 미리 정해두는 우리의 죽음문화가 연상된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약자로 이름을 올려놔야 사후에 자식들이 사찰에서 불공이라도 올려주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도 엿보인다.

망자든 생자든 나란히 자리한 위패의 주인공들이 서로 가족임을 나타내고자 염주를 함께 걸어놓은 사례도 많았다. 이처럼 위패마다 염주를 걸어놓거나 꽃·사진 등을 꽂아놓는 사례는 물론이고, 단 위에는 망자를 만나러온 이들이 차려놓은 과일·밤·생수·과자·술·우유·요구르트 등의 제물과 젓가락이 종이접시에 담겨 있었다. 위패를 모신 귀족당의 모습은 유골을 모신 봉안당의 일반적인 모습과 유사하여, 유골이든 위패든 고인을 모신 이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생자위패의 사례가 불교계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생전위패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사후를 위해 복을 짓고 싶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종교적 심성이 담긴 결과물일 것이다. 근래에 생성된 불교의 새로운 흐름으로 보이며 이러한 죽음준비의 종교문화가 어떠한 방향성을 지닐 것인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생전위패→생전예수재→영구위패→사후천도재’의 구도로 진행됨으로써 청련사에서 천도재와 예수재라는 두 유형의 죽음의례가 나란히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적 신앙기반을 읽게 된다. 생전위패를 모신 이들은 자연스럽게 생전예수재에 참여하게 되고, 임종을 하면 마치 생전의 몸과 같은 흰 케이스의 옷을 벗고 영구위패로 거듭나 사십구재와 제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V. 의례체계와 실행양상

### 1. 재차구성과 공간구조

시기의 측면에서 볼 때 청련사의 예수재는 세 갈래로 진행된다. 정기적으로는 매년 중양절과 약 3년 주기의 윤달에 실행하며, 비정기적으로는 재자의 의뢰에 따라 독설판으로 실행되는 경우이다. 2018년에는 두 차례의 예수재가 칠칠재로 실행되었다. 첫째는 7월 22일에 입재하여 9월 8일에 회향한 독설판예수재이고, 둘째는 8월 30일에 입재하여 10월 17일에 회향한 중양절예수재이다. 상황에 따라 재의 규모는 달라지나 재차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칠칠재로 치를 경우 의례내용은 크게 ①입재 ②초재~육재 ③칠재로 구분된다. 이에 입재·이재·칠재를 참관한 독설판예수재를 사례로 의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입재는 대법당인 대적광전과 명부전에서 진행되었고,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시 경에 마쳤다. 재차에 따른 의례진행과 담당승려를 간략히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입재의 주요 재차와 내용

장 소	재 차	내 용	소임별 승려
대적광전	대령	영가를 모심	※ 범주=상진, 바라지=심곡 관육 중사=도암·해경, 바라춤=일심·일효 신중작법 천수경=벽산, 복청계=일효, 천수바라=일심·일효, 도량계 인례=지홍, 사방요신=일심·일효 상단의식 상축=해경
	관육	영가의 업 씻음	
	신중작법	도량 정화와 수호	
	상단의식	상단에 공양 올림	

장 소	재 차	내 용	소입별 승려
명부전	중단의식	시왕도청	※ 법주=상진, 바라지=거진 진령계, 유치·청사, 현좌계, 다계, 권공=상진 화청=벽산, 신중퇴공=벽산, 축원= 해경 상용영반=심곡, 바라지=효능
		화청, 축원	
	하단시식	상용영반	

입재는 부처님께 49일간의 법석을 고하는 날이기에, 영가를 모시고 도량을 정화한 후 상단에 공양을 올리며 재자·영가가 함께 예수재를 열게 된 내력을 고하였다. 예수재에 영가를 모시고 대령·관육을 하는 것은, 생자를 위한 재라 하더라도 죽음을 내다보는 자리에서 선망 조상·부모와 일체고혼의 발복을 함께 기원하는 불교의례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예수재는 독설판이기에 영단에는 사중의 목패 3위(선대조사, 선망부모와 종친, 호국선열)와 함께, 재자의 선망부모 등 4인 영가의 종이 위패를 모셨다. 대적광전에서 상단권공까지 마치고 명부전으로 이동하여, 지전 경합이 가득 쌓인 앞에서 시왕도청(十王都講)을 중심으로 불공을 올린 뒤 화청과 축원에 이어 4인의 영가를 모시고 상용영반을 올렸다.

재자는 2인이 참석했는데 독설판의 주인공 김○애와 함합소를 함께 올린 여동생이다. 승려는 상주대중 12인이 함께하였다. 의례를 마친 자리에서 재자와 마주한 법주 상진스님은 경합을 가리키며 “평소에 뭘 빛을 그렇게 많이 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사는 게 편치 않지. 갇을 빛이 7만 2천권이고, 읽어야 할 경전 빛이 25권이야.”라는 웃음 섞인 서두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에 60갑자별로 읽어야 할 경전과 갇아야 할 금액을 적어놓은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에 따라, 기해년생인 재자가 갇아야 할 빛을 알려주며 앞으로 할 일을 말해주었으니 일종의 개인을 향한 법문인 셈이다.

입재 때 영가를 청해 모시고 상단에 고했으므로 초재부터 육재까지는 명부전에서만 진행되었다. 4~5인의 승려가 참여해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초재부터 육재까지 명부성중을 집중적으로 섬기는 데서 예수재의 성격과 의례목적이 잘 드러난다. 예수재 관련경전과 의문의 제목에 ‘시왕이 빠지지 않듯이, 예수재는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의례이기에 사후를 다스리는 시왕이 주 의례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시왕뿐만 아니라 26위의 판관, 37위의 귀왕 등 수많은 명부권속을 빠짐없이 청하여 정성을 들여야 한다.’<sup>27)</sup> 『예수천왕통의』에는 예수시왕생칠재를 49번이나 올린 마갈타국의 병사왕(瓶沙王)이 명부의 옥에 갇히어 그 연유를 묻자, 시왕만 섬기고 권속들이 공양을 받은 적이 없어 잡아온 것이라는 고사도 전한다. 아울러 명부전 영단에 위패를 모시고 상용영반으로 올리는 공양이 빠짐없이 따랐다.

칠재는 예수재의 핵심을 이루는 단계이다. 입재 때 이미 영가를 모시고 대령과 관육을 치렀지만, 의례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칠재의 총체적 국면에서는 새롭게 법당에 진입하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 재차와 의례내용 및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칠재의 주요 재차와 내용

장 소	재 차	내 용
증정	시련	명부전 위패→ 연에 모시고 증정 탑 앞에 안치 대중이 탑을 도는 가운데 사방요신, 요잡바라
대적광전	대령·관육	위패와 연→ 대적광전 안치 관육 때 관육바라, 화의재바라
	신중작법	요잡바라
명부전	조전점안	증사 3인의 쇠수·점안과 함께 의식 진행

27) 구미래, 「근현대 생전예수재의 전승양상」, 앞의 논문, 214~216쪽.

장 소	재 차	내용
중정	경합이운	명부전 경합→ 머리에 이고 탑을 돌아 고사단에 안치
	괘불이운	미리 모셔놓은 괘불을 향한 의식
	상단의식	사방요신, 요잡바라, 법고무
	사자단의식	사자불공→ 회심곡, 축원화청→ 사장봉송 후 위목 떼어 태움
	중단의식	명부전 번→ 시왕번 들고 중정 탑을 돌아 중단에 안치 사다라니바라, 화청
	고사단	고사불공
	전시식	대적광전의 하단시식과 동시
대적광전	하단시식	모두 대적광전으로 올라가 영단에 관음시식을 올림
중정	마구단	반야심경
소대, 중정	봉송	고사단 경합, 위패, 각종 의물→ 탑 돌아 소대에서 태움 중정에서 재자들이 승려들에게 절→ 재자·신도들 맞절 산회가와 민요 부르며 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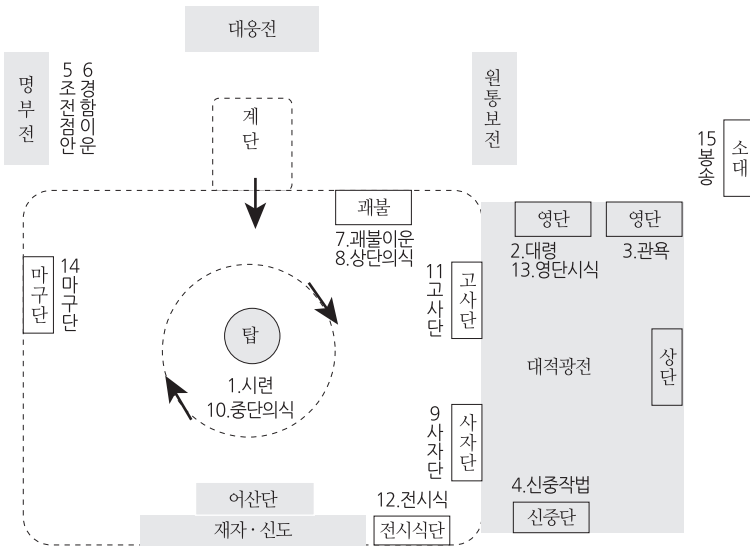


그림 1. 재차에 따른 공간구성



예수재는 오전 10시경 범종의 33추가 울린 뒤, 49일간 명부전에 자리한 영가위패를 중정으로 모시는 시련(侍釐)으로 시작되었다. 탑을 중심으로 우요3잡을 하고 탑 앞에서 시련의식을 한 다음, 대적광전으로 이동해 대령과 관육과 신중작법이 이어졌다. 다시 명부전에 올라가 3인 증명법사의 쇄수와 점안으로 지전을 명부계의 금은전으로 전환하는 조전점안(造錢黜眼) 의식을 하고, 모든 경함을 중정으로 이운해 고사 앞에 쌓아두었다. 시련·관육·신중작법에는 그에 적합한 바라춤과 나비춤이 각각 이어졌다.

미리 헌패된 괘불을 대상으로 이운의식을 하고, 법주 상진스님이 간단한 법문이 따랐다. “절에 와서 부처님께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의 문제이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삶을 바꾸는 지점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잘못과 악업을 뉘우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면서 마지막까지 지극하게 기도를 올리라”는 내용이였다. 12시 50분경 오전 재를 마치고 한 시간 정도 점심공양이 이어졌다.

2시경 상단의식이 시작되어 괘불 앞에 공양을 올리면서 나비춤·바라춤·법고춤이 따랐다. 사자단에 공양을 올릴 때는 회심곡과 축원화청을 하였고, 명부전의 시왕과 권속 옆에 꽂아둔 번을 들고 중정을 돌아 탑 앞에서 중단의식을 행하며 바라춤과 화청이 따랐다. 이어 경함을 쌓아둔 고사단에서 불공을 올린 다음, 대적광전으로 올라가 영단에 관음시식을 올리는 한편, 상진스님은 혼자 전시식단(奠施食壇) 앞에서 불공을 올렸다. 모두 중정으로 내려와 마구단에 공양을 올리고, 고사단의 경함과 위패와 각종 장엄물을 소대로 옮겨 태웠다. 탑 앞에 모여 재자들이 승려들에게 절을 올리고, 재자들과 신도들은 맞절을 하였다. 함께 산회가를 부르고, 대중의 청에 따라 상진스님이 민요를 부르며 회향하였다.

칠재에는 독설관의 주인공과 함께 함합소를 올린 4인의 재자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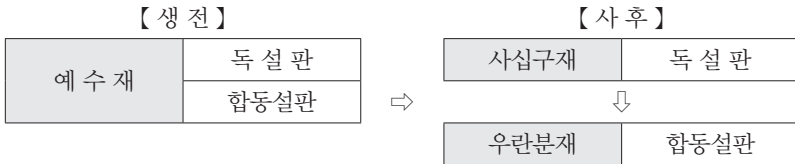
했고, 재자의 친지들, 법복을 갖춰 입은 신도회 9인과 일반신도 몇 명의 조출한 규모였다. 이에 비해 승려는 16인이었고 악사 5인이 태평소·피리·후피리·장구·나각·아쟁 등을 연주하여, 재가자의 수와 승려·악사를 합한 수가 거의 비슷하였다.

## 2. 설행양상과 의례요소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청련사의 예수재에서 주목되는 점을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 살펴본다.

첫째, 합동과 독설판이 나란히 활성화되어 있는 예수재가 망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칠칠재와 대귀를 이루며 생전의 수행정진을 이끈다는 점이다. 한국불교에서는 칠칠재로 지내는 사십구재를 준거로, 예수재뿐만 아니라 수륙재·우란분재 등 사후와 관련된 일련의 의례 또한 동일한 칠칠재의 구도를 따르고 있다.<sup>28)</sup> 칠월 보름인 백중(우란분절)은 불자들의 대표적인 조상 섬김의 날로, 우란분재·백중불공 등의 이름으로 합동천도재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현재 청련사에서 설행하고 있는 칠칠재 형식의 의례를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 5. 청련사 칠칠재의 유형과 참여방식



28) 구미래, 「백중기도(百中祈禱)」,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학술총서: 무형유산 I』,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7, 171~172쪽.

신도들은 생전에 예수재를 치르다가 임종을 하고나면 사십구재의 의례대상이 되고, 조상으로 자리한 뒤부터는 매년 합동명절제사의 성격을 지니는 우란분재에 모셔지게 된다. 따라서 예수재-사십구재-우란분재는 칠칠재라는 동일한 구조 속에서, 각기 생자와 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례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매년 설행하는 합동예수재가 우란분재와 성격이 같다면, 일생에 한 번 치르는 독설판예수재는 사십구재와 같은 구도이다.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며 정진하는 예수재와 부모조상의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우란분재가 주기적 세시의례(歲時儀禮)로 정착되어 있고, 생전과 사후에 단한 번 자신이 주인공 되어 치르는 예수재와 사십구재가 나란히 대비되면서, 죽음에 대한 자행과 타행의 신앙양상을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예수재가 사후의 두 칠칠재와 나란히 자행의 정진을 이끄는 구도를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의 신도는 부담이 적은 합동예수재에서 49일간의 정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의 여건과 인연에 따라 의미 있는 독설판예수재로 스스로를 엄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란분재와 짝을 이루는 합동예수재, 사십구재와 짝을 이루는 독설판예수재는 불자들의 생전과 사후를 연계하는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사중의 승려들로 용상방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전통은 3~4세대가 어우러진 대가족처럼 여러 세대의 상주승려들이 함께 의례를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전승되어온 것이다. 2018년의 칠재에서도 16인의 승려가 참석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상진스님의 제자 3인을 제외하면 모두 청련사의 승려들만으로 의례를 이끌어 갔다.

따라서 1950년대에 출가한 해경·도암 스님과 1961년에 출가한 지홍 스님 등 2세대 승려 3인이 모두 참여해, 관육과 조전점안에서 증명법사

를 맡아 법인(法印)을 지었고 해경스님은 중단의식 때 축원도 하였다. 법주 상진스님이 전체 의례를 이끄는 가운데 회심곡과 축원 등 세 차례의 화청에서는 상진·해경·벽산 스님의 가락을 번갈아 들을 수 있었고, 장엄전문인 지홍스님은 보휴·일구·일명 스님이 보조하는 가운데 보름 동안 만든 대형 금은전과 번·용상방·소·주망공사 등의 각종 장엄과 문서를 작성하였다. 벽산스님은 여러 재차에서 인례를 하였고, 심곡·거진(擧眞)·효능 스님은 법주 바라지를 하며 법고와 태징 등을 맡았다. 일심·일효스님은 혜각·일진 스님과 함께 나비춤·바라춤·법고춤을 추었고 일효스님은 상단의식의 통서인유 편에서 복청계를 염송하였다. 아울러 안정불교대학에서 가르치는 악사 위재영은 입재에서도 승려들의 염송에 맞추어 태평소를 불었고, 칠재에서는 그와 함께 활동하는 악사 5인이 여러 악기를 연주하였다.

봉원사 정도를 제외하면, 각 파트별로 전문적인 스님들이 포진해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절도 바깥채비라 해서 어산스님들을 외부에서 청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보면, 마산 백운사도 그렇고 밀양 쪽도 그렇고 한 분이 다 맡아하면서 제자들이 돕는 식이잖아요. 조계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범패면 범패, 장엄이면 장엄이 전문화 되었어요.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았지만 사중에 스님들이 열댓 분 이상은 세대교체하면서 늘 있었으니까 작지도 않았지. 그건 또 의례가 끊이지 않아서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sup>29)</sup>

상진스님의 구술은, 출가하여 입적할 때까지 함께 대중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적 자산이 축적되고 자연스레 대물림이 이루어진 청련사 의례

29) 구술 : 상진스님(1956년생), 2017년 8월 19일, 청련사 종무소에서.

전승의 양상을 잘 설명해준 셈이다.

셋째, 의례의 여러 구성요소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특성을 살필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들거나 사라진 장엄요소들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청련사의 예수재는 아래지역에 비해 정제되고 단아한 분위기를 지녔다. 예수재에서 흔히 쓰이는 반야용선을 예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데 비해, 삼신불번·오방불번·보고번·항마번·시주번 등 번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장엄과 깃발 등의 의물이 발달하였다.

특히 번 가운데 산화락번과 시주번, 지전의 총명지 등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요소들이다. 산화락(散花落) 번은 몸체의 아래위에 구멍을 만들어 긴 줄로 이어지게 한 뒤 양쪽에 꽃을 새겨 비 오듯 꽃이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번이다. 번의 발은 가위로 오리는 데 비해 산화락은 몸체에 새겨야 하므로, 지홍스님은 아래위의 구멍은 지전을 만들 때 쓰는 돈정을, 양쪽의 작은 꽃잎은 지화를 만들 때 쓰는 각화정을 사용하고 있다. 동참재자들을 축원하는 내용의 시주번, 지전에 꽃는 총명지도 다른 사찰에서는 본 적이 없다. 총명지는 색깔이 다른 나뭇잎 모양의 종이 두 장을 겹쳐 새싹처럼 만든 뒤 지전에 꽃았다. 지전을 명부계에서 쓰이는 종이라 해서 명지(冥紙)라고도 부르는데, 지홍스님은 예로부터 해오던 것이라고만 하여 총명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힐 과제가 남겨진 셈이다.

또한 예수재 때 설치하는 각단은 대개 사자단·고사단·마구단의 명칭을 쓰게 되나, 청련사에서는 각단존재의 위목을 문장으로 번에다 써서 매달아놓았다가, 각단존재를 보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태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명부전 성중의 번도 예수재 때마다 새롭게 조성하는데, 각각의 시왕과 권속 옆에 위목을 쓴 번을 장대에 매달아 두었다가 중단의식에 모시고 난 뒤 마지막 봉송 때 태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례대상을 모실 때마다 청하며 읽는 소(疏)를 별도로 한지에 붓글씨로 써서 용상방

의 좌우에 나란히 붙여두었다가, 봉송에서 용상방과 함께 모두 태운다.

대적광전의 상단과 명부전의 지장시왕단에 올린 공양물을 굽다리그릇이 아닌 소반(小盤)에 한지를 덮어서 각각 차린 점도 독특하다. 이는 1995년 예수재에서도 같은 방식이었듯이 청련사에서는 큰 재를 치를 때 법당의 각단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전통이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장엄이 다양하게 발달되고 시주를 부각시키는 시주번을 중시하는 점, 문서로 작성하는 요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 각상의 소반을 사용하는 점 등에서 조선후기 청련사의 중창에 왕실인물들이 참여하고 상공들이 불화조성의 시주였듯이<sup>30)</sup> 왕실과 지배층의 재를 많이 치러온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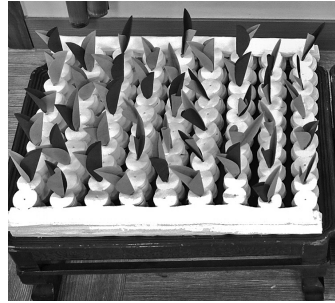


사진 4. 지전에 꽂은 총명지



사진 3. 산화락 번



사진 5. 고사단

30) 유근자, 「양주 청련사의 아미타삼존상과 관음보살상 연구」, 『불교문예연구』 11, 앞의 책, 300~304쪽.

와 연관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넷째, 그밖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정제된 분위기 속에 특유의 흥이 살아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자단의식을 마치고 명부전으로 올라가 시왕과 명부권속 옆에 꽃힌 번을 하나씩 들고 중정을 돌았는데, 공덕계를 할 무렵 벽산스님이 징을 치면서 어깨와 다리를 들썩이며 장단을 맞추자 따르는 이들이 저절로 번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나중에 벽산스님에게 물어보니 “원래 시왕번을 모시고 공덕계 할 때 ‘덩더궁’으로 맞추는 거다. 그럼 신도들이 절로 신명이 나서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였다.

적은 인원으로 진행된 예수재였지만 마지막까지 여법한 모습이 유지된 점도 인상적이었다. 우선 시련의 명부전에서부터 봉송의 소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는 일을 재자에게 맡겼다. 이는 의례의 독자성과 의례주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새로운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재자의 마음가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할 것이



사진 6. 용상방과 좌우에 걸어놓은 소(疏)



사진 7. 대적광전 상단의 상차림



다. 대개 봉송 때는 집전을 맡은 승려만 남게 마련이지만 마지막까지 한 명의 승려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 소대에서 태움의 의식을 마쳤다. 중정의 탑 앞에 의례를 함께 치렀던 모든 인원이 다시 모여 재자는 승려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재자와 신도는 맞절을 하며 함께 의례를 치른 공동체의 여법한 마무리도 돋보였다.

## VI. 맺음말

청련사는 생전에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일련의 신앙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사찰이다. 경내에 망자의 유골을 모시는 극락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패를 봉안하는 귀적당에는 망자위패(영구위패)와 나란히 생자위패(생전위패)를 함께 모시고 있다. 신도들이 자신의 위패를 조성하면서 ‘미리 예수재를 지낸다’고 표현하기도 하듯이, 생전위패를 모신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생전위패·생전예수재가 자연스레 영구위패·사후천도재로 진행됨으로써, 생전과 사후의 두 죽음의례가 활성화되어 있고 생전에 죽음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신앙의 양상을 접하게 된다.

또한 합동예수재와 함께 단독으로 주관하는 독설판예수재가 전승되면서 개인 또는 가족·친지들이 스스로의 예수재를 주관하고 있다. 이는 예수재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것으로, 의례적 부분과 무관하게 예수재는 철저히 자신과 마주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독설판예수재는 규모와 비용에 대한 문제가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지만, 다양한 개념의 독설판 또한 가능하므로 선택에 따라 융통성의 폭이 크다.

경전내용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예수재는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폭넓게 열려있었다. 『예수시왕생칠경』에 선남·선녀, 비구·비구니는 매달 초하루·보름 삼보전에 예수시왕생칠재를 지성껏 닦아나가도록 하였다. 자신을 성찰하고 업을 돌아보는 데 사부대중의 구분이 없고, 오늘날의 초하루·보름 법회처럼 일상 속에서 닦아나가는 수행의례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불자들이 상시 행하는 ‘극락왕생 불공’을 참회와 공덕의 예수재 개념으로 이끌어간다면, 보다 성찰적인 방향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상의 예수재를 점차 회복해나가는 한편으로, 불교의 세계관과 수행관이 집약되어 있고 다채로운 의례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종합연행으로서 예수재는 그 자체로 전승시켜나가야 할 독자적인 문화이다. 예수재에서 상단의 불보살은 증명단의 역할을 하고 중단의 명부시왕이 주 의례대상이 되는데, 이는 사후에 대면할 심판자적 존재들에게 미리 기도를 올리며 참회하는 성격의 의식임을 말해준다. 예수재에 설단하는 사자단·고사단·마구단은 이러한 과정을 연행적으로 보여주고, 육십갑자에 따라 각자 갚아야 할 지전·경전 빛과 이를 증명하는 합합소는 수행과 보시공덕을 이끄는 의례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련사 예수재의 가장 큰 자산은, 의례의 핵심기반인 법패와 작법무와 장엄을 사중의 승려들이 온전히 감당하며 전승해온 점이라 할 수 있다. 전통 장엄과 어산 분야를 전승하는 승려가 절대부족인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여러 세대의 승려들이 함께 대물림으로 이어오는 가운데 독자적인 용상방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 태고종 특유의 독살림 도감체제로 운영해왔다면 10여 년 전부터 원용살림으로 개혁하고 안정불교대학을 갖추어, 사중의 젊은 승려들에게도 고루 전승기반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듯하다.

의례의 구성요소에서는 번의 종류가 다양하고, 산화락번·시주번·총명지 등과 같이 사라진 장엄들이 전승되고 있어 주목된다. 각단의 위

목을 문장으로 써서 번으로 걸고, 각종 소 일체를 용상방과 나란히 붙이는 등 문서로 작성하는 요소들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에서 시주를 특별히 부각시키는 번을 중시한다든지, 각상의 소반을 사용하는 점등과 함께 왕실과 지배층의 재를 많이 치러온 흔적도 읽을 수 있다.

(2019.04.24 투고 / 2019.05.27 심사완료 / 2019.05.27 게재확정)

[Abstract]

Ritual Subjects and Aspects of the Yesujae(豫修齋)  
in the Cheongryeon Temple(靑蓮寺)

Koo, Mee-rae

The Yesujae(豫修齋) which has been passed down in the Cheongryeon Temple, was analyzed in four aspects from a folklore perspective.

First, the Cheongryeon Temple was designated as the two main Nirvana system(涅槃系) temples of ‘東靑蓮 西白蓮’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it has a remarkable history of thinking about death in the mundane world. In addition, because the tangible and intangible data of the Yesujae(豫修齋) since the 1960s can be delivered, it was able to identify the religious basis and history of the rite.

Second, the core bases of the Yesujae(豫修齋), Beompae(梵唄), Jakbeopmu(作法舞), and Jangeom(莊嚴), have been performed and handed down in the temple. In the reality of Korean Buddhism, where there is an absolute shortage of monks in charge of the chanting master and Jangeom(莊嚴), through generations of monks coming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was possible to organize its own Yongsangbang(龍象榜).

Third, not only the Yesujae(豫修齋) of Double Ninth Festival(重陽節) and the Yesujae(豫修齋) of leap month, but also the Yesujae(豫修齋) of independence, which are administered exclusively by Jaeja(齋)

者), is active. Such a joint and the Yesujae(預修齋) of independence have been performed as Chilchiljae(七七齋), leading the way to the religious purification of a lifetime by forming Funeral Ceremonies along with Chilchiljae(七七齋) of Uranbunjae(盂蘭盆齋) · 49Jae(四十九齋) for the deceased. In addition, in the Buddhist sanctuary, where the memorial tablet is enshrined, the memorial tablet for a living person is served alongside the memorial tablet for the deceased. This shows the faith aspect of the paradigm of connecting lifetime and afterlife.

Fourth, several components of the rite show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Jangeom(莊嚴) and the ceremonial elements, which are rarely seen elsewhere are being transferred. One can guess the connection with a long history of ritualistic conduct for the royal family and the ruling class, such as the importance of Shijubun(施主幡), which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various Jangeom(莊嚴), the point where the elements to be created by the documents is activated, and the point that uses small dining table as each floor in Sangdan(上壇).

□ Keyword

Yesujae(預修齋), Anjung Temple(安定寺), Buddhist Ritual, Chilchiljae(七七齋), 49Jae(四十九齋), Chilchiljae(七七齋), Beompae(梵唄), Jakbeopmu(作法舞), Jangeom(莊嚴)

[참고문헌]

- 구미래, 「불교 죽음의례의 유형과 변화양상」, 『종교문화비평』 16,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9.
- 구미래, 「근현대 생전예수재의 전승양상」, 『불교학보』 7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 구미래, 「생전예수재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생전예수재 연구』, 민속원, 2017.
- 구미래, 「백중기도(百中祈禱)」,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학술총서: 무형유산 I』,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7.
- 김상영, 「우란분재의 의미와 設行 역사」, 『불교학연구』 22, 불교학연구회, 2009.
- 김영렬, 「불교 영산재의 문화 콘텐츠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백우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청련사지」, 『白牛大宗師法語集』, 청련사, 2016.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4: 서울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1994.
- 성청환, 「현대 생전예수재의 역사와 의의: 조계사를 중심으로」, 『생전예수재 연구』, 민속원, 2017.
- 유경희, 「양주 청련사 봉안 불화의특징과 의미」, 『불교문예연구』 11, 불교문예연구소, 2018.
- 유근자, 「양주 청련사의 아미타삼존상과 관음보살상 연구」, 『불교문예연구』 11, 불교문예연구소, 2018.
- 윤소희, 「청련사 어산상진 범음성 계보와 성음의 특징」, 『불교문예연구』 11, 불교문예연구소, 2018.

이성운, 「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불교  
문예연구』 11, 불교문예연구소, 2018.

이종수, 「양주 청련사의 역사적 변천과 위상」, 『불교문예연구』 11, 불교문  
예연구소, 2018.

韓萬榮, 『韓國佛教音樂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증보판.

한태식(보광), 「생전예수재 신앙 연구」, 『淨土學研究』 22, 韓國淨土學會,  
2014.